

<서 평>

이기욱 1995 『濟州道 農民經濟의
變化에 관한 研究』김 창 민¹⁾

1

고 이기욱 교수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인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그의 인류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학자로서 이기욱 교수는 제주도 농민 연구에만 전념하였고, 제주농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 밝히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논문은 이 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그의 문제의식, 연구의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논평자는 이 논문의 개요를 간단히 요약한 뒤 그의 관점과 학문적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 자신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첫 번째는 제주농민들의 생계경제에 대한 분석이다. 그는 제주농민들이 자급자족적 생계경제를 어떻게 유지해 왔으며 그 취약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농민경제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개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제주농민의 미래

1) LG종합기술원 커뮤니카토피아 연구소

에 대한 전망이다. 그는 제주농민경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그런 취약성에 대해 제주농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제주농민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제주농민들의 생계경제에 대해서 생태적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섬마을과 해안마을, 그리고 중산간 마을을 각각 하나씩 사례연구하여 생태적 조건이 다른 마을이 각각 어떤 경제체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생계경제가 생태적 적응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자는 제주의 농민문화 역시 이러한 생태적 적응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다.

농민경제의 변화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의 농업은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그는 상업농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서술하면서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변화로 제주농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게 되었음도 보여주고 있다.

제주농민의 미래에 대해서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비록 제주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열악해졌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심각한 위기요인이 되고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주농민들의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믿으면서 이러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2

이 연구에는 제주문화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필자는 평소 생태학적 관점으로 제주문화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그런 관점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생태적 관점은 생태적 조건과 기술, 사회조직, 이념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특히 생태적 조건이 다른 요소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입장에서 문화를 설명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연구대상으

로 정한 세 마을의 생태적 조건을 비교하고, 그 마을의 생계방식 차이가 바로 생태적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문화유물론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에 대한 강력한 설명도구가 될 수 있다. 마빈 해리스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전형적인 학자로서 그는 일견 이상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화들도 문화유물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도의 암소숭배, 힌두교의 돼지 혐오와 뉴기니의 돼지 축제, 중세의 마녀사냥, 원시 전쟁 등을 설명하였다(마빈 해리스 1975).

구체적으로 보면 이기욱 교수는 제주도의 핵가족 제도를 생태환경적 조건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제주도는 화산토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 생산성이 낮고, 이러한 조건에서 농업을 하려고 하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노동력 투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잉여노동력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가족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글에서 필자(이기욱 1989)는 제주도의 뱀신앙을 문화유물론의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농업 생산량이 적은 제주도에서 쥐는 인간의 식량을 위협하는 적이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뱀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고양이도 쥐를 제거하는 동물이지만 이 교수는 뱀이 인간과 식량을 두고 경쟁하지 않는데 비해 고양이는 인간과 식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뱀이 더 적응적인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뱀숭배 신앙은 이러한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물론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는 문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한 셈이다. 문화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입장을 거부하고 그러한 문화가 어떤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는 문화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거나 아니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거부하고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상시켰다. 그는 제주문화를 관념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재로서 인식한 셈이다.

이 연구논문에서 필자는 제주농민경제의 변화를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주의 문제를 제주 자체의 문제로 분석하려고 하는데 비해 그는 제주의 문제를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사회와의 관련성 하에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제 3세계 주변부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Taussig 1980; Wolf 1982). 지역과 국가를 연결시켜 분석하면 지역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지역은 지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농업, 어업, 축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제주농민경제의 변화가 정부의 개발정책에 의해 유발되었으며, 지역 자원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인식한다. 그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제주 개발정책이 경제발전애 기여하였다고 인식함으로써 발전론자의 입장에서 있다. 비록 그는 근래 들어 제주경제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그는 낙관론자이고 현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 연구논문은 제주농민경제에 대한 충실한 민속지(ethnography)라는 점에서 학문적 공로를 부여받을 수 있다. 생계경제에서부터 환금작물경제, 그리고 제주농민경제의 미래까지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제주농민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농업은 물론이고 어업과 축산업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섬마을과 해안마을, 그리고 중산간 마을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제주농민 경제를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논문은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지나치게 민속지적 서술에 집착함으로써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사실들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부족하고, 연구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게 느껴진다. 정부의 정책과 농민경제의 변화를 분석하면서도 그는 양자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여 제주농민경제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많은 자료들이 연구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정리되었더라면 이 연구의 성과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연구자가 비록 세 마을을 연구지로 선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마을에서 나온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선택한 자료는 제주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수집한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세 마을의 사례는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농민경제의 변화 부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세 마을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하였으면 그 마을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민속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점은 연구자의 제주에 대한 연구 열정에 의해 충분히 양해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인류학에 입문한 이래 가파도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줄곧 제주문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제주에 대한 연구 열정은 그가 제주도의 세 마을을 비교연구 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동일한 지역에서 생태적으로 상이한 몇 개의 마을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남태평양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이 사용하던 방식이다. 비교방법은 문화의 같음과 다름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가 가지는 일반성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는 제주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에 골몰하던 중 제주도와 같은 도서

사회인 남태평양을 연구하는데 세 마을이 비교연구 되었다는 사실 (Nayacakalou 1978)에 주목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는 제주사회를 연구하는 방법론에서조차 제주도를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만큼 제주도에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쉽게도 제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제주문화연구에 매진하던 필자의 후속연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제주학 분야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앞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 고 문 헌

이기욱

1989 제주도 사신송배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6집, 제주도연구회

Harris, M

1975 문화의 수수께끼, 박종열 역, 한길사

Nayacakalou R. R.

1978 Tradition and Change in the Fijian Village, Suva, Fiji Times Ltd.

Taussig, M

1980 The Devil and Commodity Fetishism in South America,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Wolf, E.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 of California Press